10명 중 6명 "임대차법 도움 안돼"…집주인·세입자 '전세' 선호

직방, 앱 접속자 1154명 대상으로 설문조사

응답자 64.3%가 "임대차법 도움 안돼" 선택

임대인·임차인 78.6%는 "전세 거래 선호해"

부동산 참여자 10명 중 6명은 지난 7월 말부터 시행된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에 대해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다양한 주택 임대차 거래 유형 중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전세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월세' 때문인데, 집주인은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는 데에 따른 부담이 없어서 였고, 세입자는 매달 내야하는 고정지출(월세)이 없기 때문이었다.

9일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이 어플리케이션 내 접속자 1154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3일~26일 설문조사(신뢰수준 95%±2.88%p)를 진행한 결과, 임대차법이 전·월세 거래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64.3%가 '도움이 안된다'고 답했다. '도움된다'는 응답은 14.9%에 불과했다.

특히 임대인이나 임차관계와 무관한 자가 거주자 층에서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 비율(75.2%)이 임차인보다 높게 나타났다.

임차인은 전세 임차인 67.9%, 월세 임차인 54%가 도움이 안 된다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50~60대 이상, 세대 구분별로는 2~3인 가구, 4인 이상 가구 세대에서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통상적으로 전, 월세 수요가 많은 층인 20~30대나 1인 가구가 아닌 그룹에서 개정된 법이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의 78.6%는 전세거래를 더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전세 임차인은 98.2%, 월세 임차인은 66%가 전세거래를 선호했다.

임대인도 절반 이상은 57.8%가 전세거래를 더 선호한다고 답했다.

전·월세 임차인 응답자 중 3040세대의 80% 이상이 전세를 선택해 다른 연령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광역시 거주자들의 전세 선호 응답비율이 높았다.

임차인들이 전세를 더 선호하는 이유는 '월 부담하는 고정지출이 없어서'가 48.3%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전세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저렴해서(33.6%)', '내집마련을 위한 발판이 돼서(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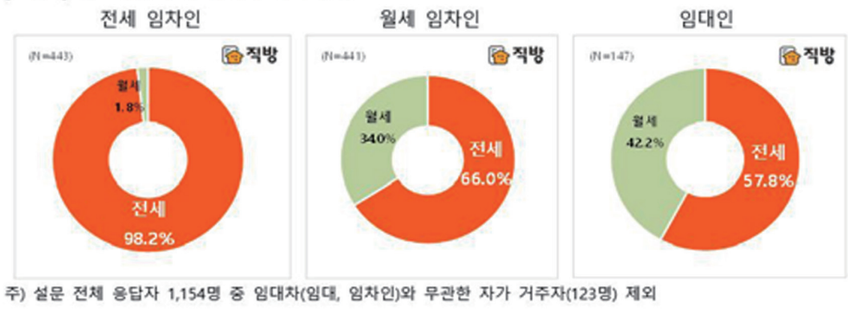
임차인들이 월세를 선호하는 비율은 17.9%였다. 월세 선호 이유는 '목돈 부담이 적어서(55.1%)'가 과반수였다.

이어 사기, 전세금반환 등 목돈 떼일 부담이 적어서(11.4%), 단기 계약 부담이 적어서(9.5%), 전세 매물 찾기가 어려워서(9.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임대인의 경우 57.9%가 전세를 선호했는데, '세입자 월세 미납 부담이 없어서(36.5%)' 이유가 가장 컸다.

다음으로는 전세금으로 재투자가 가능해서(29.4%), 장기계약으로 임대관리 부담이 적어서(21.2%)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월세를 선호하는 임대인(42.2%)의 절반은 '월 고정적인 임대수입이 있기 때문에(50%)' 월세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주) 설문 전체 응답자 1,154명 중 임대차(임대, 임차인)와 무관한 자가 거주자(123명) 제외

다음으로는 보유세 등 부담을 월세로 대체 가능해서(22.6%), 계약 만기 시 반환보증금 부담이 적어서(14.5%), 시중금리보다 임대수익률이 높아서(11.3%) 등 순이었다.

다음 이사 시, 전·월세 형태로 이사를 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 중 83.7%가 '그렇다'고 답했다.

전세는 61.5%, 보증부 월세(월세 또는 반전세)는 22.2%, 나머지 16.3%는 임차 형태로 이사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

월세로 이사계획 중인 수요는 20대(94.3%), 지역별로는 서울 거주자(89.2%), 세대별로는 1인가구(90%)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개정된 임대차법이 시행 4개월차를 맞았으나, 개정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혼란을 빚고 있다"며 "설문조사 결과에서 확인했듯이 법 개정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다. 단기적으로 실질적인 대책이 없더라도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속적, 장기적인 제도 및 시그널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함 랩장은 이어 "선호 거래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임대, 임차인 모두 전세거래를 선호하는 응답이 높아 전세물건 부족 현상이 더욱 우려된다"며 "월세로의 전환 움직임이 급격히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김민정 기자

'쿠쿠 스피드팟으로 간편하게' 홈플러스는 멀티 압력 쿠커 '쿠쿠 스피드팟(CMC-A0655FB)'을 대형마트 처음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 '쿠쿠 스피드팟'은 찜, 탕, 수비드, 조림, 국, 케이크 등 70여 가지 요리를 다이얼 하나로 완성하는 '올인원' 가전이다. (사진=홈플러스 제공)

9월 세계 자동차 판매량, 올해 첫 증가세

전년 동월 대비 2% 증가…794만5000대 기록

지난 9월 전세계 자동차 판매량이 올해 들어 처음 증가세로 돌아섰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지난 9월 세계 자동차 판매량이 지난해 9월에 비해 2% 증가해 794만5000대를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지역별로는 미국·유럽·중국·인도 등 주요 시장에서 전년 대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미국은 역대 최저수준의 금리 등 정부 경기부양책과 대중교통 기피에 따른 자동차 대체수요 증가로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 6.1% 오른 134만대 판매량을 기록했다.

유럽 역시 저공해차량 인센티브, 지속적인 여행 제한, 코로나19로 지연된 대기수요 발현 등에 따라 지난 7월에 이에 또 다시 전년 동월 대비 판매량이 는 것으로 집계됐다.

협회는 다만 지난달부터 미국·유럽 등 선진시장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지속적인 판매량 증가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달부터 봉쇄령이 적용된 프랑스·영국·벨기에 등은 딜러십 폐쇄 조치 등 영향으로 신차판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역시 코로나19 재확산과 함께 높은 실업률, 영구실업자 증가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및 대선으로 인한 추가 경기부양 기금 협상 지연 등으로 증가세 지속이 불확실할 전망이다.

협회는 "지난 9월·10월 두 달 연속 증가한 국산차 수출 호조가 지속될 지 불투명하다"며 "한국지엠 노조의 부분파업 강행, 기아차 노조의 파업 준비, 르노삼성 노사 임단협 교섭 지연 등 최근 재연되는 노조 리스크 가중으로 협력사의 유동성 위기 재확산이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봤다.

정만기 회장은 "한동안 코로나19 사태가 주춤해 세계 수요가 회복세를 보인 것은 다행이지만 선진시장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연말 글로벌 수요 회복세가 꺾일 우려가 있어 우리 업체의 유동성 위기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금 사정이 열악한 부품업체의 여건을 감안해 최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자동차 업계의 임단협 교섭과 파업 강행 등 노사 갈등이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선옥 기자

10월 국내선 550만명 이용…코로나 이전 수준에 근접

국내선 승객 554만1934명…전년比 -9.8%까지 좁혀

엿새간의 추석연휴도 한몫…약 104만명 국내여행 길

엿새간 이어진 황금연휴의 영향으로 지난 10월 김포와 제주, 광주공항 등 국내선 이용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 전 상황으로 회복돼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국내선 항공기를 이용한 승객은 약 554만명으로 집계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병하기 이전인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 안까지 차이를 좁힌 것으로 조사 됐다

9일 한국공항공사가 공시한 항공통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김포와 제주, 김해공항 등 전국 15개 공항을 이용한 국내선 승객은 554만1934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가 발병하기 이전인 전년 같은 기간 614만1080명과 비교해 9.8% 감소한 것으로, 올 초 시작된 코로나19 위기에서 점차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달에는 엿새간 이어진 추석연휴를 이용해 이른바 추캉스(추석+바캉스)객들이 고향 대신 제주와 김해, 여수 등으로 국내여행을 떠나면서 국내선 이용객이 증가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기도 했다. 올 추석 연휴 국내선 이용객은 104만5402명으로 집계된 바도 있다.

지난달 국내공항의 실적을 살펴보면 ▲제주공항이 220만3665명으로 승객이 가장 많았고, 이어 ▲김포 183만5184명 ▲김해 69만2149명 순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국내공항의 항공기 운항 편수도 전년도보다 6.7% 증가한 3만5916편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기간 국내선 승객들이 많이 이용한 항공사는 ▲제주항공이 100만2916명으로 승객이 가장 많았다. 뒤이어 ▲티웨이항공 96만4429명 ▲진에어 94만7929명 ▲대한항공 81만4190명 ▲아시아나항공 77만9872명 순으로 집계돼 승객들은 국내 대형 항공사보다 운임이 저렴한 저비용항공사(LCC)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선은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에서 회복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김미희 기자

내년부터 퇴직연금 수익률·예상수령액 받아본다

'퇴직연금 운용보고서' 개편안 확정…사업자, 연 1회 이상 통지해야

내년부터 '퇴직연금 운용보고서'를 통해 내 퇴직연금의 실질 수익률과 예상 연금수령액을 받아볼 수 있게 된다.

9일 금융감독원은 업계와의 태스크포스(TF)와 전체 퇴직연금사업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퇴직연금 운용보고서' 개편안을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개편되는 서식에 의해 가입자에게 개별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업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 운용보고서'를 연 1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

개편되는 운용보고서는 ▲납입원금 대비 수익률 ▲펀드 보수 ▲55세 이후 연금수령액 등을 안내한다.

우선 가입자가 운용성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첫 페이지에 '표준 요약서'를 신설하고 '납입원금 대비 수익률'을 보여준다.

안내장 수령인이 직접 부담한 자산·운용관리 수수료 총액도 함께 안내한다.

또한 적립금을 펀드로 운용할 때 별도로 부과되는 펀드 총보수율과 100만원당 총 보수액에 대한 안내를 추가하기로 했다.

통상 펀드 총보수는 적립금에서 매일 자동 차감되기 때문에 가입자가 보수율을 체감하기 어렵고, 퇴직연금 계좌에서 발생하는 자산·운용관리수수료와 별개로 부과된다는 사실을 가입자가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다.

적립금 운용단계의 수수료 뿐만 아니라 연금수령단계의 수수료를 추가로 안내해 근로자의 연금수령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근로자가 노후 수령액을 확인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연금수령 예상액을 연령별·연도별로 안내한다.

금감원은 이번 개편으로 퇴직연금 가입자가 자신의 수익률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수익률에 대한 관심과 이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연금감독실은 "가입자가 매년 예상 연금수령액 확인 등을 통해 사전에 필요한 자금을 추가로 납입하는 등 노후생활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